

2010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29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아비가일의 예표

성경: 삼상 25:2-42, 골 1:24, 계 1:9, 엡 6:10-20

I. 다윗은 고난 가운데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삼상 25:28.

- A. 다윗은 시간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망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있는 가장 세세한 예표이다—마 12:3.
- B. 다윗은 부활하시기 전에 땅에서 고난 가운데 계셨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다윗의 고난은 강탈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입지인 좋은 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시 69:1-9.
- C.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훈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인정 받았다—삼상 16-17.
- D.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에 두드러진 두 중점이 있다—18—24 장.
  - 1. 첫 번째로 두드러진 중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계 4:11, 단 4:1-3, 34-35.
    - a.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롬 9:19-23.
    - b. 주권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뒤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왕상 22:19.
    - c.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케 하도록 사울을 예비하셨고, 다윗을 돕도록 요나단과 미갈을 예비하셨다—삼상 18:10—20:42.
    - d. 다윗은 그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했다—17:36-37, 23:14-16, 30:6 하-10.
  - 2. 두 번째로 두드러진 중점은 다윗이 십자가의 공과를 취한 것이다.
    - a. 비록 다윗은 박해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싸우거나 반항하거나 응수하지 않았다.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는 항상 십자가 아래 있었다—24:3-22.
    - b.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받은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마 16:24.
- E.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존재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느낌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수고하고 처신했다—삼상 15:28.
- F.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확고하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그의 반복된 승리에서 나타난다—삼하 5:17-25.
- G.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은 그의 것이었다.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왕국이 있었다—행 13:22, 36.
- H.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은 한 가지—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는—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리 아래 안배되었다—마 6:10, 33.

## II. 아비가일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한다—삼상 25:2-42.

- A. 사무엘상 25 장부터 아비가일은 항상 전사 다윗의 편에 있었고 전쟁 가운데 있는 다윗을 따랐다—40-42 절.
1.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것은 교회가 전쟁을 위해 군대로 입대한 것을 예표한다—엡 6:10-20.
  2. 아비가일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한다—계 1:9, 11:15, 12:10.
- B. 아비가일의 예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할 필요성을 묘사한다—빌 3:10, 골 1:24, 계 1:9.
1.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셨다. 또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으로서,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골 1:24.
  2.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연결하여 언급한 사실은 청지기 직분이 오직 고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25 절.
    - a.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함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계 1:9, 고후 1:3-6.
    - b. 교회의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청지기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꺼이 지불하기를 자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10-12, 요 12:24-26.
- C. 아비가일의 예표는 교회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한다—엡 6:10-20.
1.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1:11, 3:9-11, 6:10-12.
  2.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마 6:10, 7:21, 사 14:12-14.
    - a. 영적 전쟁은 신성한 뜻과 사탄의 뜻의 충돌에 그 근원이 있다.
    - b. 교회로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뜻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계 12:11.
  3.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10 절.
    - a.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마 12:26, 28.
    - b. 땅에 있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16:18-19.
  4. 사탄은 그에 맞서 싸우고 그의 왕국에 맞서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려워한다—아 6:10, 엡 6:10-20.
  5. 그리스도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전투를 해온 이와 결혼하실 것이다—계 19:7-9, 11-16.
  6.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에 맞서 싸워 그들을 패배시킨다—계 2:7, 11, 17, 26, 3:5, 12, 21, 11:15, 12:10.